

## 한국아동패널 정책세미나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한 육아정책 세미나가 차녀 양육스트레스의 분석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2011년도 4월 29일(금)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08년부터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인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시작하여, 올해 4차년도 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후속출산 증진과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시대변화와 더불어 출산율 저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다각적 논의와 여러 가지 정책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본 정책세미나는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출산과 양육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차녀 양육스트레스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후속출산계획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후속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응전략을 탐색하고, 육아지원 정책과 출산 장려 정책의 방향을 잡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2차년도(2009) 조사에 참여했던 어머니 1,904명 중 취업모와 비취업모 각각 600명씩 총 1,200명이었다. 연령은 취업모, 비취업모 및 전체집단에서 30대가 72.5%~77.0%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0.5~25.0%, 40대는 2.5%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대졸 42.1%, 고졸 26.7%, 전문대졸 24.1%였고, 취업모의 학력이 비취업모의 학력보다 높았다.

### 주제발표

차녀양육 스트레스의 분석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제언

이정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토 론

좌장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영환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이경옥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부교수

나종혜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았다. 본 연구 대상의 가구 소득은 201~300만원 29.6%, 301~400만원 20.3%, 101~200만원 19.7%였고, 취업모의 가구 소득이 비취업모의 가구 소득보다 높았다.

'추가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없다는 집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를 인식하는 정도

는,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집단 모두에서 낮았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중다회귀로 분석한 결과, 취업모와 고학력의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머니들이 우울의 정도가 심할수록,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부 갈등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는 높았다. 또한 결혼 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다고 인지할수록,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인지할수록, 모든 어머니들이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는 낮았다. 취업모의 경우는,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과 육아지원의 여러 제도를 이용해 본 횟수가 많고,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낮았다.

양육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들의 순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집단의 경우 우울이 약 27%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부부갈등 정도의 세 변인이 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우울이 약 24%를, 자아존중감, 부부갈등 정도,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제도 이용 횟수의 네 변인이 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우울이 30%의 설명력을 보였고,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부부갈등 정도의 세 변인이 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실시한 세 집단 모두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집단이 후속 출산계획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므로, 출산을

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 해소 방법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중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주요 변인으로 부각되었기에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육아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토론의 장 제시, 어머니의 우울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지원책,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시행 및 보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부부 관계의 질,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서적 지원과 같은 요인들도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진 및 부부관계 결속을 위한 프로그램 확산 또한 중요한 시안이라 여겨진다.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정도에는 우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같은 요인들이 다른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후속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및 시행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취업모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육아지원 정책의 이용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유의하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에서 질 좋은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저출산을 타개하고 육아지원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 제시, 즉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실현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